

## 잠녀문화 문화재 인정 작업 탄력

6일 도문화재위 전체회의 해신당·불턱 대상 확대 이후 지정 결정기로  
제주옹기장 명칭 변경 및 분야 확대, 제주목관아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등록 : 2011년 09월 06일 (화) 19:29:56  
최종수정 : 2011년 09월 06일 (화) 19:29:56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의 '잠녀문화 세계화' 선언에 이어 이를 문화재로 인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갖고 잠녀 관련 문화유산인 해신당과 불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조사에서 파악된 불턱 10곳 외에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치 부여가 가능한 불턱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해녀·해녀문화는 그 독창성과 역사성, 사회적 가치 등에 비해 문화 범주에서만은 아직까지 별다른 정체성을 갖추지 못해왔다.

'제주 해녀 노래'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 1호로 등재된 것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잠녀 물질 도구나 해신당, 불턱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잠녀들이 작업 전·후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속칭 '불턱'을 비롯해 '잠수굿'과 '해신당'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2009년 이들 3대 해녀문화를 문화재로 지정기로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해신당의 무사안녕 기원제(잠수굿)나 불턱공동체 문화는 잠녀 물질이라는 생업에서 파생된 문화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협약 등에서는 이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살아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이란 전제에도 부합하는 등 잠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부지만 변화 조짐이 엿보이면서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는 등 지역 사회 공감대 유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논리 개발도 주문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의결 후 교박 2년 만에야 주관 부서가 확정되고 전승보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불편했던 과정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위는 도 무형문화제 14호 제주도 허벅장의 제주도 옹기장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보유자 1인 체계에서 4개 분야(굴대장·질대장·도공장·불대장) 확대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굴대장 고신길 △질대장 이윤옥 △도공장 고원수·신창현 △불대장 강신원씨 등이 보유자로 전승후계자를 양성하게 됐다.

이밖에도 선운정사 석조 약사여래좌상의 자료적 가치를 인정해 도 문화재 자료 11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위는 서귀포 천지연 생수계 구석기유적과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 면적 추가 지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